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심은 왕버들



지정번호 고령-11-19-4-1-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고령

수령 194년

수고 12m

흉고둘레 4,5m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410

35° 44' 35.00" N

128° 21' 46.00" E

마을 입구의 보호수(고령-11-19-4-1-1) 왕버들은 작은 개울과 논밭 옆의 마을길 모퉁이에서 당산목으로 자라고 있다. 왕버들의 나이는 194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450cm, 밑동둘레는 4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8m 가량이다. 왕버들은 원줄기 2m 높이에서 가지가 3갈래로 갈라져 있고, 나무껍질은 나사처럼 돌아가는 모양이다. 군데군데 외과수술 자국이 있으며, 말라 죽은 위쪽 가지가 여러 곳이 있어 생육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 왕버들 옆에는 정자와 나무의자도 있다. 예전에 왕버들 주변에는 커다란 돌무더기가 2군데 있었으나 새마을운동 시절에 모두 없어졌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왕버들과 정자 사이에 서 있는 2개의 돌기둥이다. 키가 큰 돌은 신랑, 오른쪽의 끝이 뾰족한 돌은 신부라 부른다. 신부 돌은 10여 년 전에 농기계와 부딪혀 부서져 다시 세웠다. 부서지기 전에 있던 신부 돌은 끝부분이 죽두리를 쓴 모습이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돌기둥과 청춘 남녀의 절절한 사랑이다. 옛날 이 마을에 마음씨 좋은 가난한 농부와 심보 고약한 부자가 살았다. 농부집은 잘생긴

총각이 있었고, 부자집은 예쁜딸이 있었다. 가난이 심은 총각은 글 읽기를 하며 열심히 공부하였고, 부자집 딸은 글 읽는 소리가 너무도 좋게 들었다. 어느 날 둘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양가의 부모는 둘의 결혼을 반대하였다. 처녀 총각은 둘만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하였다. 둘은 떠나기 전에 부모에게 불효를 용서해 달라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곳에 왕버들을 심어 놓겠다고 했다. 처녀 총각은 왕버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면 금슬 좋게 잘사는 줄 알고, 이 나무가 말라 죽으면 우리도 죽은 줄 알아달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을을 떠났다. 그 후 양가의 부모는 날마다 왕버들을 찾아가 보곤 하였다. 왕버들이 무럭무럭 자라면 그들이 잘사는 줄 알고, 조금이라도 시들면 걱정하며 살았다. 이러한 전설이 있는 왕버들은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가꾸었기에 오늘날의 정자목이자 자랑스러운 당산목으로 마을의 화합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왕버들 아래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제를 지낸다.

